

현악기(絃樂器)의 화음(和音)



김유혁 |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장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이가 공자에게 물기를, “자연이 무엇인가?” 그 때 공자는 방목우(放牧牛)를 가리키면서 “자것이 자연이요” 또 물기를, “인간은 무엇이요?” 그 때 공자는 농경우(農耕牛)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인간이요”라고 대답했다. 오만했던 그 질문자는 그 때서야 경의를 표하면서 물러갔다고 한다. 방목우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자라고 있지만, 농경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코도 피어야 하고 노역에도 시달려야 한다.

우리들은 공자를 가리켜 위대한 성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하려는 이가 많았다. 그와 같은 대적과정에서 탁견(卓見)을 펴 보였기에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사람이 스승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승기자(勝己者)로 여길 줄 아는 자세다. 승기자를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승을 발견하기 어렵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들은 본받고 싶은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의 지표가 될만한 정신지향적인 가치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악기는 복수의 현을 가지고 있으며 현마다 그 길이가 다르고 음의 고저가 다르다. 그러나 현악기는 화음(和音)을 내면서 이체조화(異體調和)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화이부동(和而不同) 또는 부동이화(不同而和)라고 한다.

사람이 수준 높게 어우러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보다 큰 가치실현을 위해서 화음을 내는 현상과 같기 때문이다.

심신(心身)의 조화는 언행의 일치현상을 말한다. 언행일치는 사람의 인격을 헤아려볼 수 있게 하는 기본척도(尺度)다. 민주주의는 인격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하나는 공사(公私)문제가 충돌을 일으키는 갈림길에서는 선공후사(先公後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치는 갈등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성을 앞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두 가지의 덕목을 언행일치 차원에서 지켜가지 못한다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유지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익(衆益)에 우선하는 사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청이전의 예정지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현악기의 화음과도 같았다. 몇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하나하나의 과정을 질서 있게 거칠 수 있었고 아울러 중익(衆益)에 다가설 수 있는 성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공명성과 신뢰성의 소산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무신(民無信)이면 불립(不立)'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당국과 의회 및 추진위원회와 그리고 자문위원회 및 평가단 등 각자의 영역에서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주인(主因)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시해야 할 일은 전문영역별로 제구실을 다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보자료를 체계있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충남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컸으며, 기획단 요원들의 수준 높은 행정관리능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 모든 분야의 역할이 현악기처럼 어우러져서 화음을 울려 퍼트린 연주의 현 과정이요 장면이었다고 본다.